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여섯 종류 이본(異本) 이미지 비교 연구를 통한 각 판본의 인쇄 기술 및 인쇄 시기 추정

유우식(미국 캘리포니아주 WaferMasters, Inc. 대표 및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객원연구원)

국문요약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중기 사이에 다양한 인쇄 기술로 간행된 유사한 여섯 권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고서(古書)의 이미지 비교를 통하여 인쇄 특징과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1984년에 보물로 지정된 삼성본(三省本)과 2012년에 보물로 지정된 공인본(空印本),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진행했던 대구본(大邱本)과 반야사본(般若寺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산문고본(一山文庫本) 및 2021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친가에서 소장했던 판본인 종로도서관본이 연구 대상이다. 간기가 적혀있는 두 가지 판본(대구본과 종로도서관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 비교를 통해서 매우 유사한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의 인쇄 시기와 인쇄 방법을 추정하였다. 공인본이 가장 빠른 시기인 1239년(고려

고종 26)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야사본, 대구본, 삼성본은 금속활자본으로 추정되는 공인본을 저본(底本)으로 목판으로 번각하여 인쇄한 판본으로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네 가지 판본이 모두 금속활자본의 번각본(飜刻本)으로 공인본이 가장 후쇄본이라는 서지학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앞의 네 가지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526년(조선 중종 21)에 목판을 복각(復刻)하여 인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판본에서는 앞의 네 가지 판본과 형식은 같으나 글자체가 다르고 일부 글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수정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공인본은 1377년에 인쇄된 『직지』보다 138년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고서 이미지 비교·분석, 인쇄 방법, 인쇄 시기, 금속활자 인쇄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최이 발문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원인 |
| II.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 3. 간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쇄시기의 특정 |
| III. 유사한 여섯 종류의 이본(異本) | 4. 책이 알려진 순서로 정리한 판본 간의 글자 비교 |
| IV. 이미지 비교를 통한 인쇄 기술 및 인쇄 시기의 추정 | 5. 추정되는 인쇄 순서 |
| 1.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 비교 | V. 맺음말 |

I. 머리말

역사학자 Larry Gormley는 2000년에 ‘지난 1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The Greatest Inventions In The Past 1000 Years)’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0가지의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하였는데 1450년에 독일의 Johannes Gutenberg가 발명한 인쇄기(Printing Press)를 으뜸으로 꼽았다.¹⁾ 인쇄 기술을 통하여 인류의 문해력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그 이유이다. 2005년에 Tom Philbin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100대 발명품들의 순위를 매기면서 ‘바퀴’, ‘전구’에 이어 세 번째로 ‘인쇄기’를 선정했다.²⁾ 인쇄술의 중요성은 문화사적, 과학사적, 기술사적, 서지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또는 『直指(직지, Jikji)』는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현전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1455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금속활자로 인쇄된 14행 성서보다 78년 앞선다.^{3) 4)} 다만 금속활자의 개발과 인쇄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되고 실용화되었으나 세계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아마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외국에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과 서양 로마자의 단순한 조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서적의 인쇄에는

1) Gormley, L., The Greatest Inventions In The Past 1000 Years, <https://ehistory.osu.edu/articles/greatest-inventions-past-1000-years>

2) Philbin, T.(2005) pp. 8-9.

3)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The invention of movable metal type: Goryeo technology and wisdom.

4) Newman, M.S., The Buddhist History of Moveable Type Forget Johannes Gutenberg - The first person to ever make a book printed with moveable metal type was named Choe Yun-ui. The Buddhist Review Tricycle,

많은 종류의 한자와 한글 활자가 필요했으며 상업적인 인쇄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직지』보다 빠른 시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은 1234년(고려 고종 21)에 『古今詳定禮文(고금상정예문)』 또는 『詳定古今禮文(상정고금예문)』과 1239년(고려 고종 26)년에 『南明泉和尚頌證道歌(남명천화상송증도가)』와 같은 금속활자 인쇄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상정고금예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다수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판본에 관해서는 서지학자들 간에도 일부 판본은 금속활자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모든 판본이 금속활자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번각목판본(飜刻木版本)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⁶⁾ 2010년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2010년 9월에 공개되어 학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금속활자의 진위문제에 관한 논란이 7년 이상 이어졌지만 2017년 4월에 문화재위원회 보물 지정 안건 심의에서 ‘부결’되었다.⁷⁾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선행연구⁸⁾에 이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유사한 여섯 종류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이본 이미지의 면밀한 비교와 더불어

5) 金斗鍾(1979) pp. 72-73.; 孫寶基(1979) p. 73.; 錢혜봉(2003) pp.1 1-13.; 南權熙(2011) pp. 191-227.

6) 千惠鳳(1984) pp. 63-75.; 千惠鳳(1988) pp. 267-279.; 朴東燮(1988) pp. 15-192.; 孫煥一(2017) pp. 71-108.; 박상국 (2020a) 제1장-제4장.; 박상국 (2020b) 제1장-제4장.

7) 강태이 외 3인(2015); 남권희 · 권오덕(2015) pp. 349-382.; 연합뉴스,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어” … 7년 진위 논란에 종지부(2보),

8) 유우식 · 김정곤 (2021) pp. 791-800.; 유우식 (2022a) pp. 404-414.; 유우식 (2022b) pp. 327-361.; 유우식 (2022c) pp. 357-396.; 유우식 (2023) pp. 321-354.

각 판본의 출판 배경 및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판본의 인쇄 시기의 전후 관계와 인쇄 방법을 추정하였다.

II.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證道歌(증도가)는 당(唐: 618-907)나라의 영가(永嘉) 진각대사(眞覺大師) 현각(玄覺: 665-713)이 중국 선종(禪宗) 육조대사(六祖大師) 혜능(慧能: 638-713)을 뵈고 크게 깨달은 바를 3자 또는 7자 구로 읊은 『永嘉眞覺大師證道歌(영각진각대사증도가)』의 약칭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송(宋: 960-1279)나라의 남명(南明) 천화상(泉和尚)이 『영각진각대사증도가』의 각각의 구절에 계송(偈頌)을 붙여 깨달음의 진면목을 설파한 것이다. 熙寧十年丁巳七月(희녕 10년, 1077년: 고려 문종 31, 정사년 7월)에 팔창(括蒼)의 오용천용(吳庸天用)이 적은 서문에 이어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千頃山沙門 法泉 頌이라고 적은 후에 증도가와 계송이 이어진다. 계송에 이어 熙寧九年七月十日(희녕 9년 (1076년: 고려 문종 30) 7월 10일) 팔창(括蒼)의 축황(祝況)의 후서(後序)가 이어지는 구성이다. 전체는 44장의 종이에 한쪽 면으로 인쇄되어 있고 중앙의 판심(版心)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또는 칠침안정법(七針眼訂法)의 선장제본(線裝製本)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져 있다. 제44장에는 전엽에만 인쇄되어 있어 전체는 87쪽에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사한 형태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여섯 종류가 있으며 모두 후서의 다음에 본문의 글자보다 작은 글자로 고려 무신정권의 실력자였던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 1166-1249, 최우(崔瑀)에서 개명)의 다음과 같은 발문(跋文)이 적혀있다.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學叅禪之流 莫不由斯而入升
堂觀奧矣 然則 其可閑色 而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
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晉陽公 崔 怡 謹誌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기해(己亥)년은 1239년으로 고려 고종 26년이다. 발문 중에서 ‘於是募工重彫鑄字本(어시모공중조주자본)’의 ‘重彫鑄字本’에 대한 해석에 따라 모든 판본을 금속활자본의 번각본으로 보는 시기와 여섯 가지 판본 중에서 일부는 금속활자본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⁹⁾ 따라서, 각 판본 이미지의 면밀한 비교와 출판 배경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판본의 인쇄 시기의 전후 관계와 인쇄 방법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판본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한정된 판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와 실제 간행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일부 판본의 추가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31년 10월 3-4일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의 전신) 도서관 주최 ‘朝鮮活字印刷資料展(조선 활자인쇄자료전)’¹⁰⁾에 일본인 카미오 카즈하루(神尾弼春: 1893-)가 소장한 판본이 전시되면서이다.¹¹⁾ 이때 이미 최이 발문의 時己亥九月上旬(1239년 9월 상순)이라는 간기가 소개되었다. 카미오 카즈하루는 『まぼろしの満洲国(신비로운(환상 같은) 만주국)]과 『東方文化襍考(동방문화잡고)], 『契丹

9) 朴東燮(1988) pp.15-192., 박상국(2020a) 제1장-제4장.; 박상국(2020b) 제1장-제4장.

10)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昭和6年 (1931년) 10월 3일, 4일. p. 7.; 尹炳泰(1976) pp. 67-90.; 戰前期「外地」図書館資料集-朝鮮編-金沢文圃閣・出版目錄 (jimdo.com)

11) 박상국(2020a) 제2장.; 박상국(2020b) 제2장.

『佛敎文化史考(계단(거란)불교문화사고)』 등의 불교 관련 서적을 집필한 인물로 일제 강점기에 중국과 조선에서 활동했다.¹²⁾ 그가 소장했던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행방은 알 수 없다.

1954년 7월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가 주최한 ‘古印刷文化에 관한 資料展示’¹³⁾가 열렸다. 같은해 10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韓國活字印刷本展示’¹⁴⁾가 개최되었다. 이때 일산(一山) 김두중(金斗鍾: 1896-1988)¹⁵⁾소장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출품되었고 최이 발문에 적힌 鑄字(주자)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김두중은 1960년에 발표한 『고려주자본의 중각본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라는 논문에서는 최이 발문을 번각본의 근거로 판단하였다. 1972년에 한국과학사학회에서 발표한 『討論「韓國의 金屬活字」』의 總說(총설)에서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번각본의 저본으로 사용된 원본마저도 목활자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本鑄字가 金屬으로 된 것이 아니고 木材로 된 鑄字였으리라는 疑問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高麗高宗 26年 己亥(1239年)의 鑄字本の 重刊本으로 전하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印本の 字體가 大小 고르지 않으며 字形에 있어서도 金屬活字로 된 原本에 依據된 것이라고 斷定을 내리기에 어려운 要素가 內包되어 있어 그 原刻本은 金屬活字가 아니고 木活字로 된 印本이었으리라는 것을 推定하고 있으며...¹⁶⁾

12) 神尾 式春 - Webcat Plus(nii.ac.jp)

13) 『古印刷文化에 관한 資料展示目錄叢本』, 延熹大學校, 檀紀 4287年 7月 15日, 16日.

14) 『韓國活字印刷本展示目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檀紀 4287年 10月.

15) 김두중(金斗鍾)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aks.ac.kr); 故 일산 김두중 敎수의 『한국 고인쇄기술사』, 제2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선정 - 대학지성 In&Out(unipress.co.kr)

김두중 소장본은 목판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그의 이러한 의구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판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구의 방향과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¹⁷⁾ 다만 연구 초기에 매우 한정적인 판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잠정적인 결론과 서지학 분야 연구자들의 선입견이 판본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이제까지 알려진 여러 판본의 이미지를 모아서 비교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도 가능하다.

Ⅲ. 유사한 여섯 종류의 이본(異本)

현재까지 최이 발문이 포함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판본은 일본인 카미오 카즈하루가 소장했던 행방을 알 수 없는 판본을 제외하면 여섯 가지 판본이 알려져 있다. 여섯 가지 판본의 일반적인 명칭, 소장처, 서지적 특징, 추가정보 및 참고 사항을 존재가 알려진 시기순으로 표1에 정리하였다.

여섯 가지 판본은 글자체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1526년 이후에 인쇄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소개한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이 유사하고, 이보다 인쇄 시기가 이른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은 다른 계통으로 판단 된다.¹⁸⁾

16) 金斗鍾(1979) pp. 72-73.

17) 千惠鳳(1984) pp. 63-75.; 朴東燮(1988) pp. 15-192.; 남권희(2011) pp. 1-586.; 유우식 (2022b) pp. 357-396.

18) 유우식 (2022a) pp. 404-414.; 유우식 (2023) pp. 321-354.

일산 문고본은 일산 김두중이 소장하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되어 보관되고 있다. 종로도서관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종로도서관에 보관된 것으로 종로도서관의 전신인 경성도서관(1920년 개관) 종로분관에서 수집한 장서로 2021년 3월 11일 자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이 고시되었다.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친가에서 소장했던 것이며 최이의 지문 다음 쪽에 인쇄된 간기에 따르면 1526년(朝鮮中宗 21年)에 황해도(黃海道) 자비산(慈悲山) 심원사(深源寺)에서 판각한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소장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도서관 직인에 15.4.1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昭和15年(1940년) 4월 1일에 분류되어 소장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해(己亥, 1239)가 적혀있는 최이 발문이 포함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여섯 가지 판본의 특징

번호	명칭 · 소장처	서지적 특징	비고
1	중앙 도서관본 일산문고본 一山文庫本	목판본의 특징이 관찰됨.	고려 고종 26년 (1239) 일산 김두중 소장본. 1954년 서울대학교, 연희대학교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판본.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제책.
2	종로 도서관본 鐘路 圖書館本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산문고본과 유사하지만 다른 판본으로 판단됨. 목판본의 특징이 관찰됨.	조선 중종21년 (1526) 6월. 황해도(黃海道) 자비산(慈悲山) 심원사(深源寺) 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종로도서관(1920년 개관한 전신인 경성도서관에서 수집한 장서).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 순정 효황후 친가 소장품. 2021년 3월 11일 서울시 유형문화 재 지정 고시. ¹⁹⁾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제책.

번호	명칭 · 소장처	서지적 특징	비고
3	삼성본 三省本 삼성 출판박물관	도침 가공된 고급 종이. 먹색이 짙고 고름. 목리문과 획의 탈락이 많이 관찰됨. 주서(朱書)가 있음.	보물(1984년 5월 30일 지정) ²⁰⁾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제책. 구 김종규(金宗圭) 소장본.
4	공인본 空印本 공인박물관	종이가 매우 얇음. 전체적으로 먹색이 옅고 농 박의 차이가 큼. 보사, 가필 흔적 다수. 고려시대 구결토(口訣吐) 와 차자토(借字吐)가 필사 되어 있음.	보물 (2012년 6월 29일 지정) ²¹⁾ 칠침안정법(七針眼訂法) 제책. 금속활자본으로 추정됨. 구 박동섭(朴東燮) 소장본. 구 안동본(安東本).
5	대구본 大邱本 대구 개인소장본	먹색이 짙고 고름. 목리문(木理紋)과 획의 탈 락이 자주 관찰됨. 가늘고 작은 글씨로 고려시 대 구결토(口訣吐)와 옛 한 글로 토를 달았음. 각 장의 상단에 소장자의 도 장이 찍혀 있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중에 권말에 붙어 있던 조선 성종 3년(1472)의 간기가 갑인자 소자(甲寅字小字) 로 인쇄된 김수온(金守溫)의 발문 이 제거된 것이 판명되어 문화재 지정에서 보류됨. (2017) ²²⁾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제책. 구 김병구(金秉九) 소장본.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고문헌실, https://jnlb.sen.go.kr/jnlb/html.do?menu_idx=155; 경향신문, 종로도서관 소장 고서 3종,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3111201001>

20) 보물 남명천화상송증도가(1984) (南明泉和尚頌證道歌(1984)) | 국가문화유산포탈 | 유형분류 (heritage.go.kr)

21) 보물 남명천화상송증도가(2012) (南明泉和尚頌證道歌(2012)) | 국가문화유산포탈 | 우리지역 문화재 (heritage.go.kr)

22) 2017년도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번호	명칭 · 소장처	서지적 특징	비고
6	반야사본 般若寺本 故종진스님 소장본	먹색이 짙고 고름. 도침가공된 종이 사용. 종이가 심하게 갈변. 고려시대 구결토(口訣吐) 가 필사되어 있음. 화옹주인(華翁主人)이라는 글자가 광곽 안팎의 여백에 큰 글자로 적혀있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되었으나 지 정 검토회의에서 부결. 전체 44장중 제1장 전엽과 후엽이 유실됨.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채택.

중앙도서관본은 종로도서관본과 비슷하기는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목판으로 판각한 것임이 확인된다. 중앙도서관본의 정확한 인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없으나 종로도서관본과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번각된 다른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은 1970년대부터 삼성본-공인본-대구본-반야사본의 순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²³⁾ 네 가지 판본 모두 전체적인 서체와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인출 시기만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인출 시기의 전후 관계는 인쇄 상태, 획 탈락, 목판의 손상, 종이 질 등의 차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서지학자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견해는 삼성본이 가장 빠른 시기에 인출된 것이고 공인본이 가장 후대에 인출된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공인본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2012년도 3차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²⁴⁾

23) 千惠鳳(1988) pp. 267-279.

조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 고종 26년(高宗 26, 1239)에 진양공 최이(晉陽公 崔怡, ?~1249)가 주자본(鑄字本,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을 번각한 목판본으로 보물 제758호로 지정된 판본(版本)과 동일한 판본이나, 다만 보물 제758호보다는 후쇄본(後刷本)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른 시기의 논문에서는 종로도서관본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기가 없는 중앙도서관본의 정확한 인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대구본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중에 권말(卷末)에 붙어 있던 1472년(조선 성종 3) 6월로 적혀있는 김수온의 발문이 제거된 것이 2017년에 판명되어 문화재 지정에서 보류되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알려졌던 삼성본과 공인본 모두 조선시대에 인쇄된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²⁵⁾

여섯 가지 판본 중에서 정확한 인출 시기 또는 목판의 판각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대구본과 종로도서관본이다. 대구본의 인출 시기는 1472년 6월이며 종로도서관본의 인쇄에 사용된 목판의 판각 시기는 1526년 6월이다. 여섯 가지 판본 모두 1239년 9월 상순이라고 적혀있는 최이 발문이 붙어 있다. 따라서 1239년 9월 상순이라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1239년에 인쇄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인본이 1239년에 인쇄된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에는 목판 인쇄본으로 보기에는 쉽게

24)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2012년도 3차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25) 동아일보, 보물 지정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으로 드러나,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60129/76197418/1> 2016.1.29.; 한국일보, "보물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일 가능성" (hankookilbo.com) 2016.1.29.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여럿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남명천화상송중도가』의 여섯 가지 이본의 인출 시기와 인쇄 방법을 목판의 판각 시기가 특정된 대구본(1472년 6월)과 종로도서관본(1526년 6월)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입견 없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직지』 이전에 인쇄된 우리의 금속활자본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남명천화상송중도가』 공인본이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직지』보다 138년 앞선 시기에 인쇄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 우리 것이면서도 완전한 우리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IV. 이미지 비교를 통한 인쇄 기술 및 인쇄 시기의 추정

『남명천화상송중도가』 여섯 가지 판본의 44장(87 인쇄면)의 이미지 중에서 서문 2쪽(제1장 전엽 및 제2장 전엽)과 후서(後序)와 최이의 발문(跋文)이 기록된 2쪽(제43장 후엽 및 제44장 전엽)에 해당하는 4쪽의 이미지를 표 2 - 표 5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표 6에는 인쇄 또는 판각 시기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간기가 인쇄된 이미지를 표시하였다. 반야사본은 제1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탈락한 상태이다.

여섯 가지 판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 2 - 표 5에 정리하고, 인쇄 시기의 전후 관계와 인쇄 방법을 추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 또는 문자열의 확대 이미지를 정리하였다.

이미지 비교 분석을 통한 인쇄 기술, 목판본의 인쇄 순서, 인쇄 방법에 관한 연구는 1360년대에 인쇄된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²⁶⁾ 15세기와 금속활자로 인쇄된 『고려사(高麗史)』와 16세기에 번각한 목판으로 인쇄된 판본,²⁷⁾ 1777년에 중앙정부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고 지방 감영에서 보급한 번각목판본 『명의록(明義錄)』, 1778년에 같은 방법으로 인쇄 보급된 『속명의록(續明義錄)』²⁸⁾에 관한 연구사례가 있다. 근대 인쇄물의 경우에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여러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각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하여 간행연대를 추정한 연구²⁹⁾와 1925년에 출판된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초간본 이본의 인쇄 방법 추정에 관한 연구³⁰⁾가 대표적이다.

매우 유사한 판본이 여러 권 있을 경우, 이미지 비교를 통하여 인쇄 방법, 인쇄 순서, 인쇄 시기 등을 간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6) 유우식(2024) pp. 358-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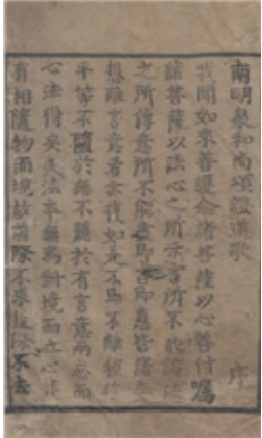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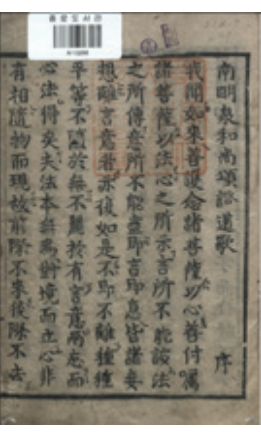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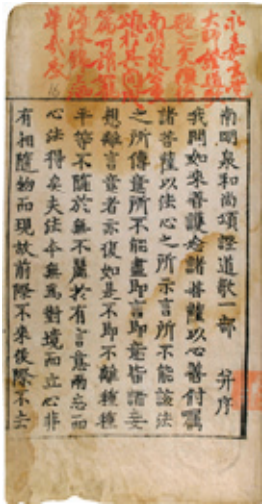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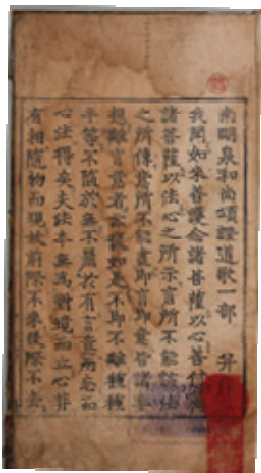
27) Yoo, W.S. and Yoo, C.D. (2024) pp. 779-792.

28) 유우식 (2022b) pp. 357-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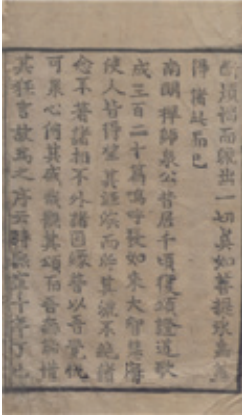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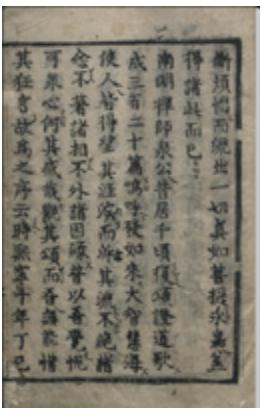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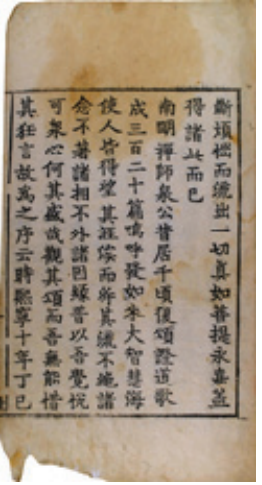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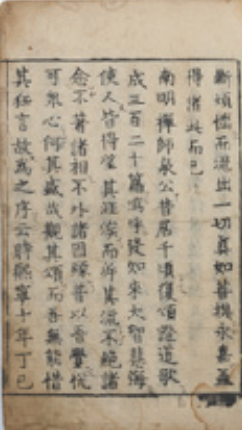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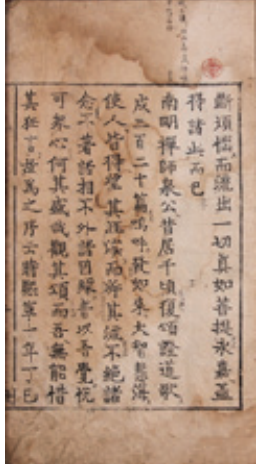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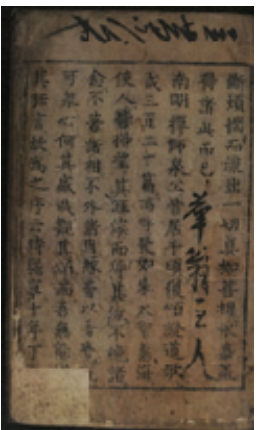
29) 유춘동, 유우식 (2022) pp. 96-108.

30) 유우식, 유영식 (2024) pp. 233-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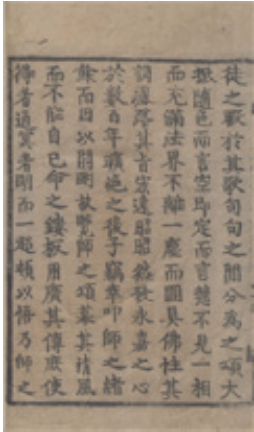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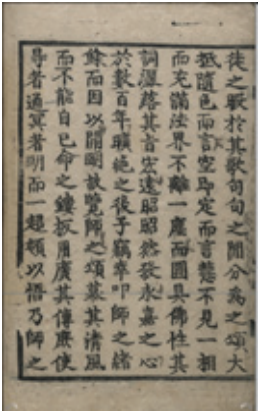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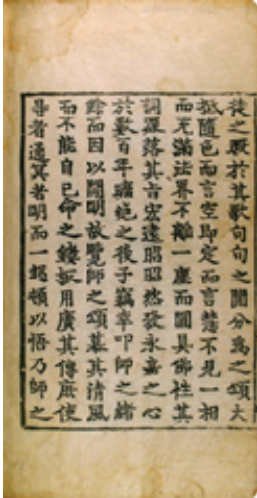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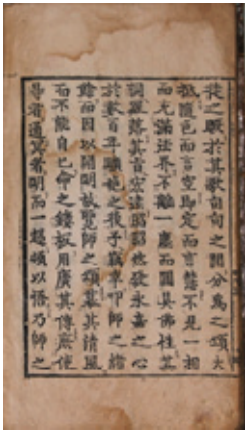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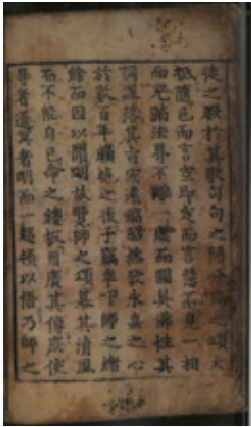
〈표 2〉 『남명천화상승증도가』 여섯 가지 판본 제1장 전엽 이미지

		
중앙도서관본	종로도서관본	삼성본
		제1장은 낙장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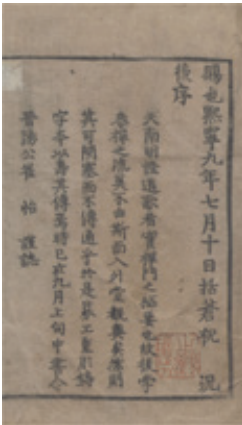
〈표 3〉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여섯 가지 판본 제2장 전엽 이미지

		
중양도서관본	종로도서관본	상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

〈표 4〉 『남명천화상승증도가』 여섯 가지 판본 제43장 후엽 이미지

		
중앙도서관본	종로도서관본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

〈표 5〉 『남명천화상승증도가』 여섯 가지 판본 제44장 전엽 이미지

		
중양도서관본	종로도서관본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

1.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 비교

제1장 전엽(표 2)의 이미지의 첫 행의 글자를 보면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는 南圃泉和尚頌證道歌 序(남명천화상송증도가 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판본(삼성본, 공인본, 대구본)에는 南圃泉和尚頌證道歌一部 并序(남명천화상송증도가일부 병서)라고 인쇄되어 있다.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서는 一部 并(일부 병)의 3자가 빠져 있다.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은 다른 판본에 비해서 후대에 인쇄된 것이므로 목판을 복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판본에서 밝을 명(明)자가 고자(古字)인 𪛗자로 인쇄되어 있다. 행의 숫자와 각 행의 글자의 숫자와 배치는 동일하지만 글자체를 비교해 보면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행의 시작 부분의 南圃(남명) 두 글자만 보더라도 글자체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행의 마지막 글자인 囑(촉)의 크기가 다르게 인쇄되어 있으므로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의 인쇄에는 다른 목판이 사용되었다.

목판을 크기가 큰 나무 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목판으로 인쇄하면 목판에 판각된 정보가 종이에 그대로 전사(傳寫)되어야 할 것이다. 인쇄된 글자의 크기나 배치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인쇄에 사용한 목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수율이 높은 상태의 목재로 목판을 판각한 후에 목판이 건조되면 목판의 수축이나 뒤틀림으로 인쇄된 글자의 크기나 배열도 목판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목재의 수축률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30% 정도까지는 거의 수축이 발생하지 않으나 함수율이 30% 이하로 낮아지면 나이트 방향으로는 6-8% 정도, 나이트와 수직 방향으로는 3-5%, 나무의 성장 방향으로는 0.3-0.4% 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³¹⁾

둘째 행은 불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我聞(아문)으로 시작되는데 들을 문(聞)자를 자세히 보면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서는 정상적인 글자로 인쇄되었으나 나머지 판본에서는 문 문(門)자 안에 있는 귀 이(耳)자의 획 일부가 끊어져 있다. 비슷한 사례로 有相(유상)으로 시작되는 제 8행 서로 상(相)자에서도 나무 목(木)변의 세로 방향의 획이 끊어져 인쇄되어 있어 마치 가로 방향의 획의 위에 점이 찍힌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글자 상의 결함은 1526년에 목판을 번각하면서 수정되었다. 이러한 작은 결함까지도 여러 판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지학계에서는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은 물론 반야사본까지도 같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은 판심 하단에 11명의 공인명(工人名)³²⁾이 새겨져 있으나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서는 판심 하단의 공인명이 새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중앙도서관과 종로도서관본이 다른 네 가지 판본과는 전혀 다른 목판으로 인쇄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장 전엽(표 3)의 이미지에서도 판본 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과 종로도서관본을 비교하면 제4행의 마지막 글

31) US Dept. of Agriculture Forest Products Laboratory (2010) Chapter 4.; 유우식 (2022b) pp. 327-361.

32) 서지학자들은 모든 판본이 금속활자본의 번각목판본으로 보고 번각목판을 판각한 각수명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감수자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는 1472년에 갑인자 소자로 인쇄된 김수운의 발문이 제거된 대구본에도 동일한 공인명이 새겨져 있는 점이다. 간기에 적혀있는 1239년으로부터 213년 후에 해당하는 1472년에 인쇄된 대구본에서도 같은 공인명이 등장하므로 같은 각수가 213년간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판각할 수 없으므로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반야사본의 판심 하단에 새겨진 공인명은 각수명이 아니고 금속활자를 조판할 당시에 각 장의 교정을 담당했던 감수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번각 목판본에서는 금속활자본에 인쇄되어 있던 공인의 이름을 후대의 각수가 그대로 번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인 바다 해(海) 자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행의 글자와 판심 쪽의 광곽(匡郭)과의 간격에 차이가 크다.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의 경우, 공인본에서만 글자 획에 칼로 새긴 자국이나 목리문(木理紋)이 나타나지 않으며 먹색에 농담의 차이가 크다. 먹의 뭉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43장 후엽(표 4)의 종로도서관본을 제외한 모든 판본을 보면 마지막 행의 첫 글자인 거리길 애(礙)자가 속자(俗字)인 𪛗로 인쇄되어 있으나 일산문고본에서만은 얻을 득(得)자로 바뀌어 있다. 복각하는 과정에서 거리길 애(礙)자의 속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彳(두인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는 거리길 애(礙)자 정자로 아홉 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속자인 𪛗(애)자가 사용된 것을 미심쩍게 생각하여 얻을 득(得)자의 彳(두인번)이 탈락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인쇄 면으로 1239년의 최이의 발문이 적혀있는 제44장 전엽(표 5)의 이미지에도 판본 간에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확인된다. 모든 판본에서 최이의 발문은 광곽에서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고 글자를 배치하였으며 글자의 크기도 본문과 후서의 글자보다 상당히 작게 인쇄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문의 세 번째 글자인 밝을 명(明)자가 본문에서는 고자인 𪛗으로 44회 사용되었으나 발문에서만 소자로 明으로 인쇄되어 있다.

2. 최이 발문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원인

종로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의 발문은 나머지 네 가지 판본과 세 글자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발문의 첫 자가 하늘 천(天)으로 적혀있으나 나머지 네 가지 판본에서는 지아비 부(夫)자로 되어 있다. 아마도 목판을

판각할 때 저본의 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지 않았거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모양이 가장 비슷한 글자인 天으로 새긴 듯하다. 첫 행의 마지막 글자는 배울 학(學)자인데 종로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서만 속자인 學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것은 종로도서관본의 인쇄에 사용한 목판을 판각할 때 저본을 종로도서관본으로 인쇄한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행의 11번째 글자인 오를 승(升)자도 바깥 외(外)자로 적혀있다. 이것은 升자가 外자와 구별하기 어렵게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인다. 만약 문맥을 보고 불명확한 한자가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 뜻의 승당(升堂) 또는 논어에서 학문(學問)이 점점 깊어짐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이는 승당입실(升堂入室)이라는 의미임을 알아차렸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문자 해독의 문제는 1972년 손보기의 논문에서도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³³⁾

「天有明證道歌者，實禪文之樞要也，故後學參禪之流莫不由斯而入外堂觀奧矣，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於是募工重彫鐫字本以壽其傳焉，時己亥(1239. A.D.) 九月上旬，中書合晉陽公崔怡 謹誌」—〈南明泉和尚頌證道歌〉刊記

최이 발문 중에서 夫를 天으로, 門을 文으로, 學을 學으로, 升을 外로, 觀를 觀으로, 최이의 관직인 중서령(中書令)의 령(令)을 합(合)으로 읽고 있다. 종로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에는 學자가 學자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인 學자로 옮겨 적고 있다. 또한 門을 우리말의 같은 음가인 文으로 오기한 것과 觀를 觀으로 적은 것은 한자의 모양이

33) 孫寶基(1979) p. 73.

비슷하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문선공이 활자의 모양만으로 판단한 결과인 듯하다. 1970년대에는 활판인쇄 방식으로 논문을 인쇄하였으므로 조판 과정에서 같은 음가의 한자로 혼동하여 오자가 사용된 것이 교정과 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나머지 參, 閉, 晉의 세 글자는 叅, 閉, 晉의 이체자이므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듯싶다. 불과 72자에 불과한 최이의 간기에서 논문인쇄 당시의 조판과 교정의 실수로 생각되는 門, 觀를 文, 觀으로 오기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夫, 升, 令 세 글자를 天, 外, 令으로 적은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당시에는 김두중이 소장하던 종로도서관본을 바탕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뿐더러 그 해석에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판으로 인쇄된 종로도서관본에 인쇄된 글자를 바탕으로 최이 발문에 적힌 重彫鑄字本(중조주자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김두중은 ‘本鑄字가 金屬으로 된 것이 아니고 木材로 된 鑄字였으리라는 疑問을 갖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³⁴⁾

1988년에 천혜봉은 최이의 발문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³⁵⁾

「夫 南明證道歌 實 禪門之樞要也 故 後學 參禪之流 莫不由斯 而入升堂 觀奧矣 然則 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 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崔怡謹誌」

³⁴⁾ 金斗鍾(1979) pp. 72-73.

³⁵⁾ 千惠鳳(1988) pp. 267-279.

이 시기에는 이미 삼성본(당시의 김종규 소장본)과 공인본(당시의 안동본 또는 박동섭 소장본)이 조사되어 종로도서관본에서 불명확했던 글자의 판독이 완료되어 손보기의 판독오류가 수정된 상태이다. 천혜봉은 같은 논문에서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두찬(金斗燦: 1919-2011)의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에 관한 논문에서 重彫鑄字本의 의미를 ‘既存의 原典을 새로 鑄字本으로 重刊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³⁶⁾ 이때 김두찬이 연구한 고려시대 구결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공인본에 필사된 것이었다. 삼성본에는 구결토는 적히지 않았다.

3. 간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쇄시기의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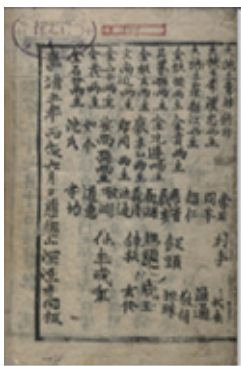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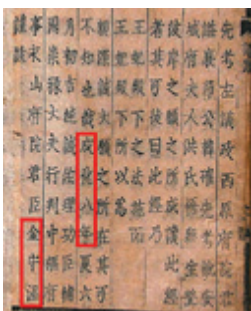
여섯 가지 판본에서 최이 발문의 뒤쪽에 인쇄의 배경과 시기를 추가로 기록해 놓은 간기가 있는 종로도서관본과 대구본의 기록을 표 6에 정리하였다. 종로도서관본은 1526년(조선 중종 21)에 황해도 자비산 심원사에서 복각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대구본은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가 발간한 것으로 조선 초기 문신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이 성화(成化)³⁷⁾ 8년(조선 중종 3)인 1472년 6월에 적은 발문이 있었다.

여러 가지 판본 중에서 인쇄 시기와 인쇄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과 반야사본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서지학과 문화재전문위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네 가지 판본의 인쇄 시기와 인쇄 방법에 관한 판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金斗燦(1987) pp. 6-13.

37) 중국(中國) 명(明)나라 헌종(憲宗: 1465년~1487년) 대에 사용한 연호로, 조선(朝鮮)에서는 세조(世祖)와 예종(睿宗), 성종(成宗)이 사용한 연호.

〈표 6〉 『남명천화상승증도가』 인쇄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추가정보

추가적인 간기 없음		추가적인 간기 없음
중앙도서관본	종로도서관본	삼성본
추가적인 간기 없음		추가적인 간기 없음
공인본	대구본 ³⁸⁾	반야사본

2016년의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획의 굵기와 지질(紙質), 서체 등을 정말 감정한 결과 보물 제758-1호(삼성본) 증도가는 조선 세종 때, 김 씨 소장본(대구본)은 성종 때, 보물 제758-2호(공인본)는 명종 때 인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서원대학교 황정하도 2020년 5월의

38) 동아일보, [단독]보물 지정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으로 드러나 (donga.com)

충청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인출 시기는 삼성출판박물관본(삼성본), 개인 소장본(대구본)(1472년), 공인박물관본(공인본) 순이다. 따라서 금속활자본으로 주장한 공인박물관본(공인본)은 3본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인출된 후쇄 목판본이다.”라고 주장했다.³⁹⁾ 공인본의 인출 시기가 가장 앞서고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으나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⁴⁰⁾

4. 책이 알려진 순서로 정리한 판본 간의 글자 비교

이러한 논란은 매우 유사한 네 가지 판본이 모두 같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인출 시기만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가 옳은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간헐적으로 제공된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잠정적인 결론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보물로 지정된 삼성본과 공인본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판본이 같은 목판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보고되었다.⁴¹⁾ 제14장 후엽 제3행의 마지막 글자인 언덕 안(岸)자의 빼침의 길이와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제36장 전엽에 인쇄된 가리킬 지(指)자 네 자를 비교한 결과, 공인본에서는 세 자의 指자에서는 방의 윗부분의 비수 비(匕)로 되어 있고 한 자에서는 머리 두(丷)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삼성본에서는 한 자에서만 匕

39) 충청리뷰,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과연 존재할까? - 충청리뷰 (ccreview.co.kr)

40) 朴東燮(1988) pp. 15-192.; 박상국(2020a) 제1장-제4장.; 박상국(2020b) 제2장.; 孫煥一(2017) pp. 71-108.

41) 유우식·김정곤(2021) pp. 791-800.

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자에서는 ㄴ로 통일시켜 놓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판본 간의 차이는 공인본과 삼성본이 서지학자들의 기존 주장대로 같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 밖에도 열 군데 이상에서 같은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 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네 가지 판본의 이미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인쇄에 사용된 원판의 동일성 여부와 인쇄 순서를 추정 한 연구에서도 서지학 분야연구자들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영문으로 해외 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 소개되었다.⁴²⁾

삼성본과 공인본을 포함한 여섯 가지 판본의 제36장 전엽에 인쇄된 指자 네 자를 판본이 발견된 순서대로 표 7에 정리하였다.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의 글자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공인본만 세 자의 指자에서는 방의 윗부분의 乚로 되어 있고 한 자에서는 ㄴ로 인쇄되어 있다. 나머지 세 가지 판본에서는 하나의 指자에서만 乚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자에서는 ㄴ로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인본이 나머지 세 가지 판본과는 다른 판(목판 또는 금속 활자판)으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6장 전엽 제6행의 2번째와 14번째의 指자에서는 방의 윗부분의 乚자는 제4행의 3번째 글자인 指자의 방의 윗부분의 乚자가 비교적 작게 되어 있으므로 공인본을 저본으로 목판을 번각하면서 획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 가지 판본의 指자의 변과 방 모두 조금씩 차이가 확인된다. 이것은 삼성본, 대구본, 반야사본도 같은 목판

⁴²⁾ Yoo, W.S.(2022a) pp. 3329-3358.; Yoo, W.S.(2022b) pp. 1779-1804.; Yoo, W.S.(2022c) pp. 1089-1119.; Yoo, W.S.(2023) pp. 2559-2581.; Yoo, W.S.(2023) 2023 AAS-in-Asia, Daegu, Korea (June 25, 2023), Presented at KNU Special Roundtable 2: Metal Printing. <https://aasinasia.org/special>; 俞祐植(2024) pp. 205-220.; Yoo, W.S. and Yun, J.S.(2024) pp. 1-22.

으로 인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부 목판 또는 목판 전체를 번각해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본문에서 岸지는 다섯 번의 사용이 확인되는데 공인본에서는 모두 빠침이 길게 되어 있으나 삼성본에서는 문제가 된 제14장 후엽의 마지막 글자에서만 빠침의 길이가 매우 짧고 각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번각하는 과정에서 목판의 상태 또는 판각의 실수로 인하여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삼성본이 공인본보다 이른 시기에 인쇄된 것이라는 서지학자들의 견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삼성본과 공인본을 포함한 여섯 가지 판본에 사용된 岸자 다섯 자의 이미지를 앞의 예와 같은 순서로 표 8에 정리하였다. 중앙도서관본과 종로도서관본은 글자체가 비슷하다. 공인본과 반야사본은 岸자 다섯 자 모두 빠침이 길게 되어 있으나 삼성본과 대구본은 제13장 전엽에 인쇄된 岸자의 빠침만 짧고 각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반야사본은 공인본을 번각한 것이고 삼성본과 대구본은 공인본 또는 반야사본을 저본으로 번각하는 과정에서 제13장 전엽의 岸자의 빠침을 어떤 사정으로 짧고 각도가 다르게 판각한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표 7과 표 8의 이미지 비교를 통해서 인쇄 순서에 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공인본-반야사본-대구본(1472년)-삼성본-종로도서관본(1526년)-중앙도서관본의 순이 될 것이다.⁴³⁾ 대구본과 삼성본의 인쇄 순서는 인쇄된 글자를 비교하여 목판 손상의 진행 정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여러 판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인쇄 순서를 추정한 연구는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⁴⁾

43) 유우식(2023) pp. 321-354.; 유우식(2024) pp. 129-164.

44) 유춘동·유우식(2022) pp. 96-108.

〈표 7〉 제36장 전엽에 인쇄된 指자 (알려진 순서순)

명칭 및 인쇄 시기	중앙 도서관본	종로 도서관본 1526년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1472년	반야사본
4행 3번째						
6행 2번째						
6행 14번째						
7행 5번째						

앞서 서지학자들이 내렸던 인쇄 순서에 관한 의견인 삼성본(조선 세종: 재위 기간 1418-1450) - 대구본(조선 성종, 1472년) - 공인본(조선 명종: 재위 기간 1545-1567)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만약 서지학자들의 주장대로 공인본이 명종의 재위 기간에 인쇄된 것이라고 한다면, 종로도서관본을 인쇄하는 데 사용한 1526년에 황해도 자비산 심원사에서 판각한 목판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공인본이 삼성본과 같은 목판으로 후대(명종대)에 인쇄했다고 하는 서지학자들의 주장은 指, 岸자의 글자 모양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종이 즉위하기 19년 전인 1526년에 이미 새롭게 번각한 목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목리문과 획탈락이 심하게 보이는 삼성본을 인쇄할 때 보다 더 목판의 손상과 열화가 진행되었을 목판으로 공인본을 인쇄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목판이 소장된 장소가 달라서 손상과 열화가 진행된 목판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까지 서지학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한 인쇄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표 8〉 여섯 가지 판본에 인쇄된 岸자 (알려진 순서순)

명칭 및 인쇄 시기	종양 도서관본	종로 도서관본 1526년	삼성본	공인본	대구본 1472년	반야사본
제5장 후엽						
제13장 전엽						
제23장 후엽						
제26장 전엽						
제30장 후엽						

5. 추정되는 인쇄 순서

목판의 번각 여부와 목판의 손상 정도의 변화에 의한 인쇄상태를 기준으로 여섯 가지 판본의 인출 순서, 인출 시기, 인출 방법을 추정한 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 44장, 87쪽의 이미지 중에서 판본 간의 차이를

비교적 잘 보여주는 제6장 전엽 제3-4행의 이미지를 예로 들었다. 인쇄 시기가 확실한 대구본(1472년)과 삼성본을 비교해 보면 빨간 사각형 테두리로 강조한 時, 物, 無, 識, 萬, 木, 此의 일곱 자에서 획이 추가로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성본과 대구본이 같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삼성본은 대구본 보다 후대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서지학자들이 제시한 세종 재위 기간에 삼성본이 인쇄되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표 9〉 제6장 전엽 제3-4행의 이미지 비교 (인쇄 순서순)

명칭 및 인쇄 시기	공인본 1239년	반야사본 1239년~	대구본 1472년	삼성본 1472년~	종로 도서관본 1526년	중앙 도서관본 1526년~
제6장 전엽 제3행 제4행						
인쇄 방법	금속 활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하여 인쇄 순서, 시기, 인쇄 방법을 정리하면 ① 공인본은 최이 발문의 내용대로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고, ② 공인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목판으로 1239년에서 1472년 사이에 반야사본이 인쇄되었으며, ③ 대구본은 일부 또는 전부 번각한 목판으로 1472년에 인쇄되었으며, ④ 삼성본은 대구본을 인쇄한 목판 또는 새로 판각한 목판으로 1472년 이후에 인쇄된 것이며, ⑤ 종로도서관본은 1526년에 복각한 목판으로 인쇄하였고, ⑥ 중앙도서관본은 1526년 이후에 다시 복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1931년에 소개되면서 최이 발문에 적혀있는 ‘重彫鑄字本’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제작 및 인쇄 기술의 역사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으나 처음에 소개된 것이 목판으로 인쇄된 판본이었던 탓에 ‘주자본을 저본으로 번각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인쇄 순서, 인쇄 시기, 인쇄 방법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인본이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직지보다 138년 앞선 것이고 1455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금속활자로 인쇄된 14행 성서보다 무려 216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0과 표 11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쇄 순서, 인쇄 시기에 맞춰 指자와 岸자를 다시 배열하였다. 가장 먼저 인쇄된 공인본을 번각한 반야사본의 목판은 매우 정교하게 판각된 것을 알 수 있다. 반야사본에서도 指자의 방의 윗부분인 匕가 ㄴ로 일부 획이 단순하게 바뀐 곳도 확인되었으나 대체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공인본의 글자체를 재현해 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판이 손상되어 대구본을 인쇄하기 전에 다시 번각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指자와 岸자의 모양에 변화가 보인다. 삼성본의 경우 岸자의 모양이 대구본을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대구본을 저본으로 다시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指자의 경우에도 𠄎의 모양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서 손상된 목판을 번각해서 인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로도서관본과 중앙도서관본의 인쇄에 사용된 목판은 1526년에 복각되었으나 각수의 판각 기술이 정교하지 못하여 이전 판본의 글자체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도서관본의 인쇄에 사용된 목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수가 임의로 제43장 후엽 마지막 행의 첫 글자인 거리낄 애(礙)자의 속자(俗字)인 𠄎자를 얻을 득(得)자로 수정하기도 하였다(표 4). 복각하는 과정에서 거리낄 애(礙)자의 속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수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𠄎(두인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확인된다.

〈표 10〉 제36장 전엽에 인쇄된 指자 이미지 비교 (인쇄 순서순)

명칭 및 인쇄 시기	공인본 1239년	반야사본 1239년~	대구본 1472년	삼성본 1472년~	종로 도서관본 1526년	중앙 도서관본 1526년~
4행 3번째						
6행 2번째						
6행 14번째						
7행 5번째						
판본 판정	금속 활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표 11〉 여섯 가지 판본에 인쇄된 岸자 이미지 비교 (인쇄 순서순)

명칭 및 인쇄 시기	공인본 1239년	반야사본 1239년~	대구본 1472년	삼성본 1472년~	종로 도서관본 1526년	중앙 도서관본 1526년~
제5장 후엽						
제13장 전엽						
제23장 후엽						
제26장 전엽						
제30장 후엽						
판본 판정	금속 활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번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복각 목판본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남명천화상송중도가』의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모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각 판본의 인쇄 순서, 인쇄 시기 및 인쇄 방법을 추정하였다. 고려 말기에서부터 조선 중기에 다양한 인쇄 기술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유사한 여섯 종류 이본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보물로 지정되었지만 정확한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는 두 가지 판본(삼성본과 공인본)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을 진행했던 두 가지 판본(대구본과 반야사본), 판식은 같으나 서체가 다른 국립중앙도서관본(일산문고본) 및 2021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로도서관본(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친가에서 소장했던 판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적인 간기가 적혀있는 대구본(1472년)과 종로도서관본(1526년)의 인쇄 시기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네 가지 판본의 인쇄 시기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미지상의 글자체 및 인쇄 특징의 비교를 통하여 인쇄 방법의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각 판본은 공인본-반야사본-대구본-삼성본의 순서로 인쇄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인본이 가장 빠른 시기인 1239년(고려 고종 26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야사본, 대구본, 삼성본은 공인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고 판본마다 필요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복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매우 유사한 네 가지 판본 모두가 금속활자본의 번각본으로 공인본이 가장 후쇄본이라고 주장해 온 서지학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결론이다. 종로도서관소장본과 중앙도서관본은 앞의 네 가지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526년(조선 중종 21)과 그 이후에 목판으로 복각된 것임이 확실하다. 종로도서관소장본과 중앙도서관본은 앞의 네 가지 판본과 형식은 같으나 글자체가 다르고 일부 글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수정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공인본은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보다 138년,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금속활자로 인쇄된 14행 성서보다는 무려 216년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엑스선 형광 분광분석법(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을 활용한 인쇄영역에 남아있는 미량의 금속 성분의 검출 등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원소분석을 포함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원전자료

2. 단행본

金斗燦 (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남권희 (2011), 『2011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 「證道歌研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박상국 (2020a), 『남명천화상송증도가—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의 탄생』, 김영사.

박상국 (2020b),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 김영사.

천혜봉 (2003), 『한국금속활자본』, 범우사.

US Dept. of Agriculture Forest Products Laboratory (2010), Wood Handbook: Wood as an Engineering Material,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Products Laboratory.

3. 논문

金斗鍾 (1979), 『討論「韓國의 金屬活字」—總說』,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南權熙 (2011), 『證道歌字와 「東國李相國集」』, 『書誌學研究』 第48輯, 한국서지학회.

남권희, 권오덕 (2015), 『證道歌字 判定의 誤謬에 대한 反論』, 『書誌學研究』 第64輯, 한국서지학회.

朴東燮 (1988), 「〈特輯〉 高麗鑄字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鄉土安東』, 創刊號, 安東市鄉土史研究會.

孫寶基 (1972), 『討論「韓國의 金屬活字」—文化史的 側面』,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孫煥一 (2017), 「『南明泉和尚頌證道歌(空印本)』에 나타난 金屬活字本의 特徵」, 『文化史學』 第48號, 韓國文化史學會.

- 千惠鳳 (1984), 『세계 초유의 창안인 高麗鑄字印刷』, 『奎章閣』 제8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유우식 (2024),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네 가지 판본의 인쇄 순서, 인쇄 시기 및 인쇄 방법의 규명-」, 『국학』,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 유우식 (2023),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이본(異本)의 비교 연구-1239년에 인쇄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의 확인-, 『한국불교사연구』, 제23호, 한국불교사학회.
- 유우식 (2022a), 「이미지 분석을 통한 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의 구별과 번각순서 판정: 남명천화상송 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여섯 가지 판본 간의 비교」, 『보존과학회지』, 제38권 제5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유우식 (2022b), 「이미지 분석을 통한 금속 활자본과 목판 번각본 특징의 정량화와 네 가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판본 간의 비교」, 『불교철학』, 제11집,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 유우식 (2022c), 「『이미지 분석을 통한 금속 활자본과 목판 번각본 특징의 정량화와 네 가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판본 간의 비교』, 『동서인문』, 20호,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유우식 (2024), 「이미지 비교와 분석에 의한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이본 조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보물 목판본에 선행하는 금속활자본의 발견」, 『보존과학회지』, 제40권 제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유우식, 김정곤 (2021), 「이미지 분석을 통한 매우 유사한 증도가(證道歌) 이본(異本)에 대한 비교연구-보물 제758-1호와 보물 제758-2호의 근본적인 차이점-」, 『보존과학회지』, 제37권 제6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유우식, 유영식 (2024), 「이미지 비교와 분석을 통한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초간본 이본의 인쇄 방법 추정」, 『보존과학회지』, 제40권 제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유준동, 유우식 (2022),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 특징의 차이점 관찰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 『보존과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尹炳泰 (1976),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 研究—그 研究史와 史料를 中心으로—』, 『奎章閣』 제1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千惠鳳 (1988), 「高麗鑄字版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重彫本에 대하여」, 『圖書館學』 第15輯, 도서관학회.

俞祐植 (2024), 高麗・高宗26年印刷の世界最古金属活字本『南明泉和尚頌證道歌』の発見, 「菅野裕臣先生追悼學術論集」, 菅野裕臣先生追悼學術論集編集委員会, 銀河書籍.

Philbin, T. (2005). The 100 Greatest Inventions Of All Time: a ranking past and present, Citadel Press.

Yoo, W.S. (2023), "Ink Tone Analysis of Printed Character Images towards Identification of Medieval Korean Printing Technique: The Song of Enlightenment (1239), the Jikji (1377), and the Gutenberg Bible (~1455)" *Heritage* 6.

Yoo, W.S. (2022a), "Direct Evidence of Metal Type Printing in The Song of Enlightenment, Korea, 1239," *Heritage* 5.

Yoo, W.S. (2022b), "How Was the World's Oldest Metal-Type-Printed Book (The Song of Enlightenment, Korea, 1239) Misidentified for Nearly 50 Years?" *Heritage* 5.

Yoo, W.S. (2022c), "The World's Oldest Book Printed by Movable Metal Type in Korea in 1239: The Song of Enlightenment," *Heritage* 5.

Yoo, W.S. and Yoo, C.D., (2024), "Image Comparison between Original and Duplicated Books on Goryeo History (高麗史) from 15th and 16th Centuries in Joseon Dynasty of Korea: Metal Typ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40(5).

Yoo, W.S. and Yun, J.S. (2024), "Discovery of the New World's Oldest Extant Metal-Type-Printed Book in Korea through Image Acquisition, Comparison, and Analysis." *Digital Studies/Le champ numérique* 14(1).

4. 기타자료

2017년도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강태이, 이가영, 이중, 황정하, (2015). 『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 제42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경향신문, 종로도서관 소장 고서 3종,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3111201001>

『古印刷文化에 관한 資料展示目錄彙本』, 延熹大學校, 檀紀 4287年 7月 15日, 16日.

김두중(金斗鍾)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대학지성, 故 일산 김두중 교수의 『한국고인쇄기술사』, 제2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선정 - 대학지성 In&Out (unipress.co.kr)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2012년도 3차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동아일보, 보물 지정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으로 드러나,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60129/76197418/1>
2016.1.29.

동아일보, [단독]보물 지정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으로 드러나 (donga.com)
(2023년 7월 31일 접속)연합뉴스, “증도가자, 보물 가치 없어” ... 7년
진위 논란에 종지부(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3141100005>

보물 남명천화상송증도가(1984) (南明泉和尚頌證道歌(1984)) | 국가문화유산포탈 | 유형분류 (heritage.go.kr)

보물 남명천화상송증도가(2012) (南明泉和尚頌證道歌(2012)) | 국가문화유산포탈 | 우리지역 문화재 (heritage.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고문헌실, https://jnlib.sen.go.kr/jnlib/html.do?menu_idx=155

충청리뷰,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과연 존재할까? - 충청리뷰 (ccreview.co.kr)

한국일보, “보물 ‘고려 증도가’ 조선 판본일 가능성” (hankookilbo.com)
2016.1.29.

『韓國活字印刷本展示目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檀紀 4287年 10月.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昭和6年 (1931년) 10月 3日, 4일.

戰前期「外地」圖書館資料集—朝鮮編 - 金沢文圃閣・出版目錄 (jimdo.com)

神尾 弼春 - Webcat Plus (nii.ac.jp)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The invention of movable metal type: Goryeo technology and wisdom,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the-invention-of-movable-metal-type-goryeo-technology-and-wisdom-cheongju-early-printing-museum/zgXxwilonG6kIg?hl=en>

Gormley, L., The Greatest Inventions In The Past 1000 Years, <https://ehistory.osu.edu/articles/greatest-inventions-past-1000-years>

Newman, M.S., The Buddhist History of Moveable Type Forget Johannes Gutenberg - The first person to ever make a book printed with moveable metal type was named Choe Yun-ui. The Buddhist Review Tricycle, <https://tricycle.org/magazine/buddhist-history-moveable-type/>

Yoo, W.S., Discovery and Evidence of the World's Oldest Metal Type Printing Book: The Song of Enlightenment (南明泉和尚頌證道歌) from Goryeo Dynasty of Korea in 1239, 2023 AAS-in-Asia, Daegu, Korea (June 25, 2023), Presented at KNU Special Roundtable 2: Metal Printing, <https://aasinasia.org/special>

Estimation of printing sequence and techniques
through image comparison study of six versions of
The Song of Enlightenment (*Nammyeongcheon*
Hwasang Song Jeungdoga: 南明泉和尚頌證道歌)

Yoo, Woo Sik / WaterMasters, Inc., California, USA and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six similar versions of The Song of Enlightenment (Nammyeongcheon Hwasang Song Jeungdoga: 南明泉和尚頌證道歌). Two versions were designated as Korean National Treasures: Treasure Nammyeongcheon Hwasang Song Jeungdoga (1984): Samseong version (三省本) and Treasure Nammyeongcheon Hwasang Song Jeungdoga (2012): Gongin version (空印本). Two versions (the Daegu version (大邱本) and the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applied for designation as Korea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The other two versions are the Ilsan collection (一山文庫本)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collection in the Jongno Library of Seoul. Both versions were printed in the middle of the Joseon (朝鮮) Dynasty. The Jongno Library collection, which was the former collection of Empress Sunjeong Hyo (純貞孝皇后)'s family of the Korean Empire (大韓帝國) was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Seoul in 2021. They are believed to be printed using various printing technique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The printing sequence and techniques were estimated through image comparisons of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versions and the information on the printing dates of the two versions (the Daegu version and the Jongno Library version). The probable printing dates of the remaining four versions were estimated. The printing order is the Gongin version - the Banyasa Temple version - the Daegu version - and the Samseong ver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Ilsan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Jongno Library version of Seoul were reprinted from woodblocks in 1526 (the 21st year of King Sungjong (成宗) of the Joseon Dynasty), using one of the other four editions as the original manuscript. The Gongin version is likely to have used the world's first metal movable type, being printed in 1239 in the Goryeo (高麗) Dynasty, 138 years earlier than Jikji.

Key words: The Song of Enlightenment(南明泉和尚頌證道歌), Image Comparison and Analysis of Old Books, Printing Methods, Printing Dates, Metal Type Printing

원고접수: 2025-03-04

심사완료: 2025-04-25

게재확정: 2025-04-26